

# “동물 표정에 인간세상 히로애락 담았죠”

## 2018 주목! 이 사람

〈1〉한국화가 송영학

미술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풍성한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진다. 2018년 활동이 기대되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문화 기획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미술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다양한 동물 그림이다. 웃는 듯 울고 있는 돼지, 경운기를 모는 소, 그리고 물끄러미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개까지 의인화된 동물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국화가 송영학(34) 작가는 오랫동안 동물을 그려왔다.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초대전 ‘같은 얼굴 다른 생각’전(2월28일까지)을 열고 있는 그를 만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선대 미술학과와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송 작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동물을 테마로 작업 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는 가장 많이 그리는 소재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프렌치 불독 등은 대체로운 모습으로 화폭에 담긴다. 올해가 ‘개의 해’다 보니 자연스레 개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왔다.

“개들과 둥구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어릴적 사진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지금도 진돗개를 키우고 있구요. 가장 친근한 동물이니 가까이서 특성을 살필 시간도 많았죠. 참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어 표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인간과 의지하면서 살아온 모습들이 표정에 모두 담겨 있지요.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그릴 수도 있고요. 여유를 잃어가는 모습, 나를 뒤돌아 보지 못하는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가 다루는 동물은 다양하다. 이번 개인전에는 소, 하마, 비비 원숭이, 고양이, 악어 등이 등장한다. 송 작가는 삶의 ‘이면’에 관심이 많다. ‘터져나오는 웃음’ 시리즈는 개와 돼지가 주인공이다. 웃음 뒤에 깔린 슬픔과 애환, 페이스스가 그대로 느껴져 웬지 애잔하다. 그의 작품들에는 풍성한 ‘이야기’가 있다. 비비 원숭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살생을 싫어하는 드라큘라 아빠’는 파퓰러 현실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무게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제가 바라보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동물을 통해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인간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싶구요. 현대인의 외로움, 고독감



담양미술관에서 초청 기획전 ‘같은 얼굴 다른 생각’전을 열고 있는 송영학 작가는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통해 인간사를 이야기한다.

행화 그리는 조부·부친 뒤이어  
가업 잇는게 당연한 듯 하다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 공고 진학  
반복되는 일상에 정신이 번쩍

10년째 동물 테마로 작업  
양단 등 끊임없는 소재 연구  
새로운 시도로 매너리즘 경계  
담양 대담미술관서 전시중

에서 오는 상실감 등을 동물들에 담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데는 사연이 좀 있다. 할아버지 송복동, 아버지 송광무(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1호 행화장) 장인을 이어 3대째 행화를 그리고 있는 그는 현재 문화재 전수생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가업’을 잇는 게 당연했고,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가졌지만 그에 맞지 않게 방황의 시간도 있었다.

“행화 작업을 할 때면 아버지가 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살가운 정을 별로 나눠보지 못했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해 평범한 가족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했죠. 그래서 기술을 배우겠다며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어느날 도장 공장에 취업을 나갔는데 정해진 규칙대로만 돌아



‘호기심 가득’(2018)

가는 기계를 보다 “내 꿈이 뭐였을까” 다시 생각하게 됐죠.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해 3학년 때 학원을 다녔죠.”

남들은 몇년 동안 해오던 공부를 1년만에 하려니 힘들었고 대학 동기들보다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입학 초기에는 기본기를 쌓는데 전력을 다했다.

“정말 그리고 싶은 그림은 인물화였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인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물은 털도 많고 표정도 풍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원숭이를 그렸는데 그때부터 재미를 느끼고 동물의 매력에 빠졌어요.”

‘한가지 주제’로 10년 가까이 작업하는 그가 가장 경계하는 건 매너리즘이다. 늘 새로운 재료 연구와 형상 실험에 나서

이유다. 한지 대신 광목을 사용하고, 또 아크릴로 바탕을 칠한 후 분체를 발라 발색감을 높이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양단 작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했다. 양단 문양을 그대로 살리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체로운 색깔이 더해지면서 색다른 느낌을 주는 게 흥미롭다.

“한복의 문양을 이용해 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양단을 활용하게 됐어요. 문양도 색채도 워낙 다양해서 술하게 발품을 팔며 그림 그리기에 적합한 양단을 찾죠. 무엇보다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 다른 문양, 다른 색깔으로 다가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지난해에도 아버지와 광주 연화사 등에서 불화 작업을 한 그는 “기법이나 금가루를 이용한 금니화도 그렇고 강렬한 색깔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불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동물”을 소재로 하다보니 자연스레 신년 기획전에 자주 초대받는다. 롯데갤러리 세화전 ‘동고동락전’(4월~1월30일), 신세계갤러리 신년 기획전(1월25일~2월20일)에도 참여한다. 또 며칠 전에는 서울 에코라갤러리와 전시회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특히 10월에는 학교 동문으로 복합문화공간 ‘김넷과’ 큐레이터인 김혜리씨와 결혼도 앞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물론 있었지만 지난해는 작가로서 행복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품 활동에 대한 조바심도 있었는데 조금씩 제 그림에 대해 기대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점에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올해도 더 열심히 작업해야죠.”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 스크린으로 만나는 ‘클래식계 아이돌’

예술의 전당 신년음악회 실황 중계... 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경쾌한 무대

‘클래식계의 아이돌’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경쾌하고 아름다운 곡을 들고 새해 벽두 클래식 마니아들을 찾아온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9일 오후8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같은 시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신년음악회’를 스크린으로 실황 중계한다.

이번 신년음악회 무대에 설 선우예권은 북미 최고의 피아노콩쿠르인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2017년 ‘오늘의 젊은예술가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이번 무대에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3번 3악장을 연주한다.

차이코프스키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는사라 사타의 ‘찌고이네트바이젠’을 들려준다.

1부에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며 위촉·작곡한 김택수의 ‘평창아라리번주곡’과 김연아 선수의 대표 쇼트프로그램곡으로 유명한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Op.40’, 요한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지휘자 성시연의 지휘로 KBS교향악단이 연주한다. 1부 마지막은 에반젤리 장에 이어린이합창단, 다문화가정오케스트라인 안녕오케스트라 등이 ‘마법의 성, 거위의 꿈’을 함께 연주한다.

2부에선 선우예권과 김봄소리 연주에 이어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 4악장을 연주한다. 무료 관람. 문의 062-670-7931. /박성천기자 skypark@

## 광신대 실용음악과 ‘하프 뮤지컬’ 콘서트

8일 광주문예회관... 2월 디지털음반 ‘9 voices’ 발매



광신대학교 (총장 정규남)가 주관하고 광신대학교 실용음악학과가 주최하는 신년 ‘하프 뮤지컬’ 콘서트

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광신대학교 실용음악학과의 특별한 소공연인 ‘쿠키 캠페인’가 100회를 맞이해 이를 기념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은 팝과 클래식의 명곡들로 이루어진 연기와 노래, 무용(피지컬 드라마) 그리고 광신 일렉트릭 오케스트라(지휘: 채희교 교수·사진)의 연주로 채워진다.

또 이를 기념하여 오는 2월 대중가요 디지털음반 ‘9 voices’를 발매할 예정이다.

올해로 설립 7년째를 맞는 광신대학교 실용음악학과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 전양팀 ‘베리타스’ 음반 발매, 2013 유네스코 주관 최우수 교육기관 선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605-0956, 010-4144-0789.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예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18은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  
전라도 방문의 해

**웰컴투전라도**  
Welcome to Jeolla-do

- 그대에게 전라도를 권함  
- 전라도 천년사, 웅대한 막  
전라도 어디까지 가봤니?

신년 기획-먼저 읽는 무술년  
2018년 무술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들

기획-광주돌리 다시보기-프로로그  
문화자산만들기  
광주폴리,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노중호의 꿈의 여행③  
'축가사'가 나을 듯한 풍경  
슬로베니아

동네 책방에 빠졌다-책방발굴②  
여행과 문화의 연동편  
'도시여행자'

**예향 초대석**

**'이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제 인생 화두는 ‘꿈 너머 꿈’이에요”

**취재의 전서**  
유럽 예술품과 진귀한 만남  
국립광주박물관,  
왕이 사랑한 보물전

공립 미술관의 길을 본다③  
도시 정체성에  
개성을 입다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문화가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③  
눈 부릅뜬 시 정신이 산다  
신동엽 문학관

해양수산부 공동기획-맛있는 어른여행  
대계마을, 울진 평해읍 거일2리  
싱싱한 굴 맛, 장흥 남포 마을

트렌드  
패션가이드  
'위로 한 컷, 추억 한 줄'  
옛날만화 열풍

예향이 만난 이 사람  
5·18평토 '메이피플' 작가 공성술  
KIA타이거즈 안병마님 포수 김민식

문화유산,  
전장 지니 순한 땅  
화순 여행  
- 색다른 체험여행  
- 기원과 평안의 마음  
- 맛있고 멋져서 소문난 화순두부